2026학년도 가/나 집중 독서N제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5] 수능특강 224P 연계

(가) 『악기(樂記)』는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활동했던 공자와 그 학파의 음악에 대한 심오한 관점이 집약된 문헌으로 평가받는다. 열국이 패권을 장악하고자 각축을 벌이던 격동의 시기에, 공자는 예(禮)를 통한 사회 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음악(樂)을 통한 인격 함양 및 사회 교화를 핵심 통치 원리로 제시하며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지향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에 대한 철학적 견해는 『논어(論語)』를 포함한 다양한 유가 문헌 곳곳에서 그 편린을 발견할 수 있다.

유가 철학에서 '악(樂)'이란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우주 자연의 근원적 질서가 조응하여 나타난 예술 형식으로 이해된다. 음악을 인간 감성의 정화와 사회적 조화 실현의 중요한 매개로 인식했던 공자의 시각 역시 이러한 이해와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서부터 국가 경영의 대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활동 영역이 올바른 음악의 실천 여하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했으며, 국가의 안정과 번영 및 개인의 덕성 성숙은 정제된 음악의 실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공자는 음악이 지닌 근본 원리, 즉 조화와 중용의 가치가 지닌 영속성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천지의 운행 질서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항구적 의미를 지닌다고 천명하면서도, 음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연주 방식 자체가 특정 시대의 관습에 얽매여 불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음악은 고정된 틀 속에 안주하기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와 깊이 교감하며 생동감 있게 변화할 때 그 본연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음악이 지닌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그것이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감화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핵심 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음악의 근본 정신이 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예악(禮樂)을 통한 국가 운영 또한 현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공자는 음악을 개별 인간의 품성 도야와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풍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포괄적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음악의 본질에 윤리적 판단 기준이라는 새로운 의미 체계를 부여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음악의 조화 원리는 다양한 인간사와 사회 현상의 선악(善惡)과 정사(正邪)를 판별하는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 정신에 기초하여 예악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여러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기반으로, 그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 표출과 개인적 이기심을 공동체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던 묵자 등의 관점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묵자처럼 일체의 음악 활동을 배격하거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를 억누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간에게 내재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긍정하며, 이러한 다채로운 감정들을 예(禮)의 정신을 통해 적절히 조절하고 음악의 힘을 빌려 순화시킴으로써 평화롭고 균형 잡힌 심적 상태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묵가(墨家) 학파의 사상가들은 음악의 가치를 그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 증진과 백성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의 관점에서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특히 한(漢) 왕조 시기에 이르러 유가 사상이 국가의 핵심 이념으로 공인되면서, 묵가의 음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유가의 예악 중심 사상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간헐적으로 주목받았으나, 점차 그 사상적 영향력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백성들의 삶이 극도의 궁핍에 처했던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사회 전체의 생산력 향상과 민생의 안정적 보장을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설정했던 사상가 묵자는 '비악론(非樂論)'이라는 독자적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음악, 그중에서도 특히 통치계급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연회 음악을 '삼무용(三無用)'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 국가 재정의 건전화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나아가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도 불필요한 요소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음악 관련 활동에 투입되는 방대한 국가 자원과 인력이 역으로 민생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간주했으며, 이러한 비생산적 지출이 당면한 사회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다. 음악이 지닌 심미적 가치나 정서 함양의 기능을 내세우며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의 소산이라고 옹호했던 유가적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그는, 국가의 부강과 백성의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같은 비효율적 활동을 과감히 중단시키고 실질적인 생산력 증대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능동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성들의 기초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된 연후에야 비로소 극히 소박한 형태의 음악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았으며, 이상적인 사회의 구현은 유가의 예악과 같은 형식적 의례가 아니라 만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인 겸애(兼愛)와 상호 이익의 증진인 교리(交利)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국시대 이후 묵가 사상이 점차 위축되면서, 그들의 주장은 후대 유학자들에 의해 선별적으로 수용되거나 혹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극단적 공리주의로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한대 한 유학자의 시각에서 묵자의 비악론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적 욕구를 간과하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지나치게 메마르게 만들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에 직면했다. 이 유학자는 묵자의 가르침이 백성을 위한 비용 절감(節用)의 정신은 훌륭하게 강조하였으나,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묵자가 제시한 '천(天)'의 개념을 유학의 천명(天命) 사상과 대비시키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서 차이가 있음을 논했다. 그는 묵자의 도와 유학의 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백성의 안녕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묵자(墨子)』의 특정 구절들을 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학문적 시도를 전개했다. 그는 묵자의 '절용'을 유학에서 중시하는 '검약(儉約)'의 덕목과 연결시키면서도, 음악 활동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사회 교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음악과 그렇지 못한 음악을 엄격히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예악(禮樂) 제도가 묵자가 깊이 우려했던 사치와 방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묵자의 주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악이 본래 지향하는 사회 통합과

도덕적 교화의 핵심 기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진한(秦漢) 교체기를 거치며 유학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자 묵자 사상의 학문적 전통은 거의 소멸될 위기에 봉착했으나, 일부 현실 문제 해결과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핵심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약하게나마 이어졌다. 한 학자인 양웅(揚雄)은 자신의 ㉡비판적 학문관에 입각하여 묵자의 비악론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한 『법언(法言)』의 일부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는 당대의 주류 유학자들이 묵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일면적으로 재단하여 배척할 가치가 없는 사상으로만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묵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는 묵자의 비악론을 단순한 음악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 아니라, 당대의 극심했던 사회적 병폐와 민생고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고뇌의 산물이자 강력한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 사상의 근저에는 만백성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兼愛)과 사회적 정의(義)를 실현하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옹호했다. 나아가 그는 묵자가 실제로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 음악 그 자체가 아니라 예(禮)의 정신과 인간적 분별을 상실한 채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음악이었으며, 이는 유학에서 배척하는 '정성(鄭聲)'과 그 해악의 본질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지적하며, 묵자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유학의 틀 안에서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공자 음악관의 주요 개념과 그 체계를 설명하고, 두 사상이 당대 정치에 미친 실제적 영향력을 대비한다.
② (가)는 공자가 지향한 예악 중심의 이상 사회상을 구체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음악의 본질적 한계와 보완 논리를 심층 분석한다.
③ (나)는 특정 개념(음악 효용성)을 기준으로 묵자에 대한 여러 시대 학자들의 견해 변화를 통시적으로 제시한다.
④ (나)는 여러 학자들이 묵자 음악론을 해석한 상반된 논점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그 해석 차이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적 시각을 포함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규범적 이상(理想)을 구체화하고, 그 이상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2. (가)에 제시된 공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현상의 선악 판단은 각 시대의 지배적 정서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음악의 구체적 양식(樣式)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간의 정서적 발현은 그 자체로 긍정될 수 있으며, 예(禮)의 원리에 따른 절제를 통해 사회적 조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승화될 수 있다.
③ 음악의 근본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항구적 가치를 지니지만, 음악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악곡이나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④ 한 국가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과 안정성은 그 사회에서 향유되는 음악의 올바른 실천 여부와 유기적 상관관계를 맺고 변화한다.
⑤ 음악은 인간 내면 감정 정화 기능과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묵자가 주장한 절용 정신을 예악의 형식적 틀과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은 묵자 비악론이 지닌 예술 비판 논리의 현대적 한계를 지적 후 그 대안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② ㉠은 묵자 공리주의 사상의 극단성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유학의 현실적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은 묵자가 비판했던 음악의 사회적 폐해를 당대 유학의 도덕적 이상에 비추어 재단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③ ㉠은 묵자 사상을 유학의 보완적 이론으로 수용하여 유학 이념의 실천적 외연을 확장하려는, ㉡은 묵자 주장을 동시대의 다양한 비판적 사상 조류와 비교 고찰하여 그 철학사적 독창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④ ㉠은 묵자 사상의 일부를 유학적 가치 체계와 접목함으로써 유교적 예악 문화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려는, ㉡은 주류 학계의 통념적 평가에 가려진 특정 사상의 본래 취지와 역사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복원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⑤ ㉠은 묵자의 실용주의를 유학의 관념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은 묵자 비악론에 대한 여러 반론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그 사상사적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4. (나)의 묵자와 한(漢)대의 한 유학자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ㄱ.음악은 창출하는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직 물질적 생산 기여도에 따라 그 필요성이 결정된다.
ㄴ. 백성의 기본적 생존 조건 확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모든 문화적 논의보다 분명 앞선다.
ㄷ.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국가는 개인의 다양한 정서 표현 활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
ㄹ. 사회 운영 규범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①묵자는 ㄱ에 동의하나 ㄴ에는 동의하지 않고,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ㄴ에 동의하겠군.
② 묵자는 ㄴ과 ㄹ에 동의하고,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ㄱ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③ 묵자는 ㄷ에 동의하지 않으나 ㄹ에는 동의하고,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ㄹ에 동의하겠군.
④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ㄱ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ㄷ에는 동의하고, 묵자는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⑤ 한(漢)대의 한 유학자는 ㄷ과 ㄹ에 모두 동의하지 않고, 묵자는 ㄱ과 ㄴ에 모두 동의하겠군.

5.<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현대 경제학자 '노벨'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현대 경제학자 '노벨'은 고대 동아시아의 음악에 관한 논쟁을 '효율성'과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예술의 경제학적 가치』라는 저서를 통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음악 활동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기회비용을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예술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고대 사상가들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그들의 본래 의도나 시대적 맥락을 무시하고 현재의 가치관을 투영하여 왜곡하는 '시대착오적 해석'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상 본연의 논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①노벨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면에서 공자의 음악 효용론이 야기될 기회비용 문제를 간과했을 가능성을 지적, 그 경제적 타당성의 엄밀한 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② 노벨은 효용성을 중시하므로 묵자의 사치 음악 금지 요구는, 당시 생산력 증대라는 공익 실현의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③ 노벨은 원전 맥락 존중을 강조하므로 한 유학자가 묵자 주장을 자신의 체계에 맞춰 선별 수용하고 재구성한 것은, 원저자 의도 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④ 노벨은 예술 지원 신중론에 따라 양웅이 묵자 비악론을 타락 음악 비판으로 한정 해석해 특정 음악 가치를 옹호한 결과에 대해선, 공공 기여도의 실증적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

⑤ 노벨은 사상 논리 중시로, 양웅이 묵자 비악론의 역사적 의의를 편견에서 구해 부각한 학문적 기여는 긍정하겠지만, 그 해석이 현대 예술 지원 정책에 주는 직접적 시사점은 매우 제한적이라 단언할 것이다.

[6~10] 수능특강 298P 연계

(가)

송대 유학을 집대성한 주희에게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대학』에 제시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첫걸음이자, 성인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 수양 방법이었다. 그는 개별 사물과 사건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통해 보편적 원리인 이(理)를 체득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앎을 최대한으로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인간 내면의 도덕성 회복과 실천을 지향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주희가 풀이한 '격(格)'은 '궁구하여 도달한다'는 의미이며, '물(物)'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일(事)을 지칭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근원적 이치인 '이'를 부여받는데, 격물은 바로 이 다양한 사물과 일 속에 개별적으로 구현된 '이'를 하나하나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본성(性)은 본래 순수한 '이' 그 자체이지만(性卽理), 현실에서는 기(氣)의 작용으로 형성된 기질(氣質)의 청탁(淸濁)과 순박(純駁)에 따라 그 밝음이 가려질 수 있다. 따라서 주희는 부단한 격물을 통해 이러한 기질의 한계를 정화하고 본성이 지닌 본래의 앎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희는 격물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경전 학습 및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찰을 중시했다. 그는 하나의 사물에 담긴 이치를 철저히 탐구하다 보면 점차 다른 사물의 이치로 그 이해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인 지식의 심화와 축적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모든 이치가 일시에 환히 관통되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지 지적인 이해의 확장을 넘어,기질적 제약을 극복하고 인간 본성의 완전한 발현에 이르는 도덕적 수양의 과정과 깊이 연관된다.

이렇게 격물을 통해 얻어진 앎을 바탕으로 '치지(致知)'는 그 앎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는 이미 깨달은 이치를 더욱 명료하게 다듬고, 아직 탐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까지 앎의 외연을 넓혀 지식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희는 이처럼 앎이 그 지극함에 이를 때, 비로소 인간의 의지(意)가 참되고(誠) 마음(心)이 올바르게 되어(正), 내면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실천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

19세기 조선, 서구 과학 지식의 유입과 함께 사회 변혁의 요구가 증대되던 시기, 실학자 최한기는 전통 성리학이 제시한 격물치지론의 관념적 한계와 현실 설명력 부족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공허한 사변적 논쟁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각 경험과 실질적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민생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서 격물치지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최한기가 제시한 '격(格)'은 사물에 직접 나아가 그 형질과 운동 법칙을 면밀히 '관찰하고 측정하며 헤아린다'는 적극적이고 경험적인 탐구 과정을 의미했다. 그에게 '물(物)'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유형의 사물과 자연 현상으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변화하는 실재로서의 기(氣)가 구체화된 다양한 모습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고전의 권위에만 의존하거나 주관적 명상에 치우치는 지식 탐구 방식을 비판하고, 객관적 관찰, 반복 가능한 실험, 그리고 정밀한 측정 도구의 활용 등을 통해 사물의 운행 이치인 '운화(運化)의 리(理)'를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신기통(神氣通)의 지혜'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된 지식이라고 역설했다.

최한기의 이러한 경험 중시 및 실증 지향의 격물론에 대해, ㉠당대의 한 정통 주자학자는 성리학의 근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한기의 방법론이 인간 내면에 갖추어진 보편적 도덕 원리(義理)의 탐구를 등한시하고, 오직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식과 기술적 효용만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을 도덕적 주체가 아닌 단순한 자연의 일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험적으로 주어진 이(理)의 우위성을 부정하고 모든 현상을 경험 가능한 기(氣)의 변화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는 성현이 확립한 우주론적 질서와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윤리적 판단의 보편적 기준을 와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최한기의 사상을 계승한 한 근대 학자은 최한기의 격물치지론을 조선 지성사의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온 선구적 업적으로 재평가했다. 그는 최한기가 제창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탐구 정신이 당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사변에 치우친 폐단을 극복하고, 객관적 지식과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문 풍토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간의 능동적인 관찰과 합리적 추론을 통해 자연과 사회의 법칙성을 탐구하려 한 최한기의 시도는, 전통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려는 근대적 학문 태도의 중요한 표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한기의 사상이 단순한 서구 사상의 모방이 아니라, 유학의 본래적 관심사인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정신을 시대적 과제

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노력이라고 그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주희 격물론의 수양론적 지향을, (나)는 최한기 격물론의 방법론적 특성과 그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주로 기술한다.
② (가)는 격물치지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고, (나)는 그것이 근대 조선 사회에 수용되어 변모하는 양상을 심층 추적한다.
③ (가)는 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점진적 심화와 그 궁극적 목표를, (나)는 최한기의 경험주의 이론에 대한 시대별 수용 양상을 제시한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격물치지를 통해 도달하는 보편적 진리의 특성을 규정하고, 그 지식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각 사상가의 독창적 격물치지론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전통 사상과의 계승 및 단절의 양면성을 분석한다.

7. (가)에 제시된 주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이(理)이나, 기질의 현실적 영향으로 그 온전한 발현이 저해되어 격물을 통한 극복이 요구된다.
② 격물은 개별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점진적으로 탐구하여, 궁극에는 보편적 앎의 총체적 통일성에 이르는 수양 과정이다.
③ 치지를 통해 확충된 앎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 아니라, 사회 질서의 안정과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실천적 기반이 된다.
④ 활연관통의 경지는 오직 외부 사물에 대한 경험적 관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하며 내면 성찰은 보조적이다.
⑤ 경전 학습과 사변적 성찰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격물의 중요한 방법이며, 지적 탐구와 도덕적 수련을 통합한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최한기가 이(理)보다 경험적 기(氣)를 절대시하여 전통 철학의 근본 원리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은 최한기의 경험론이 성리학적 사유의 관념적 한계를 넘어 실사구시 정신을 구현한 전환점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② ㉠은 최한기의 실증주의가 지닌 현실적 유용성은 일부 수긍하나 인간의 도덕적 본성 탐구를 도외시한다고 지적하고, ㉡은 최한기가 서구 학문의 무분별한 추종으로 전통 학문의 고유한 정체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판단한다.
③ ㉠은 최한기가 성현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독단적 이론 체계를 수립하여 당대의 건전한 학문 풍토를 교란한다고 보고, ㉡은 최한기가 제시한 새로운 지식 방법론이 전통 사상의 합리적 계승과 근대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④ ㉠은 최한기의 방법이 인간 내면의 수양을 경시하여 참된 인격의 완성과 사회 교화에 이르기 어렵다고 단정하며 전통적 수양론을 옹호하고, ㉡은 최한기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탐구가 봉건적 사유의 답습에서 벗어나는 지적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⑤ ㉠은 최한기의 경험론이 지닌 단편적 지식 습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진리 체계의 우위를 재차 강조하고, ㉡은 최한기가 전통과의 의식적 단절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을 독창적으로 구축했다고 해석한다.

9. (나)의 최한기와 정통 주자학자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지식 탐구의 궁극적 지향점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보다 인간 내면의 도덕적 이치를 깨닫는 데 두어야 한다.
ㄴ. 경험적 관찰과 실증적 검증은 보편적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핵심적인 방법이다.
ㄷ. 성현의 말씀과 공인된 경전의 권위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여 모든 지식 탐구 활동의 절대적 준거가 된다.
ㄹ.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그 자체로 불완전성을 내포하므로, 참된 앎은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① 최한기는 ㄱ과 ㄷ에 동의하지 않고, 주자학자는 ㄴ에 동의하지 않겠군.
② 최한기는 ㄴ에 동의하고, 주자학자는 ㄱ과 ㄷ에 동의하겠군.
③ 최한기는 ㄷ과 ㄹ에 동의하지 않고, 주자학자는 ㄱ에 동의하겠군.
④ 주자학자는 ㄱ과 ㄹ에 동의하고, 최한기는 ㄴ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⑤ 주자학자는 ㄴ과 ㄹ에 동의하지 않고, 최한기는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10.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현대 철학자 '오윤석'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현대 철학자 '오윤석'은 자신의 저서 『인식의 두 날개』에서, 참된 지식 체계는 선험적 이성이 제공하는 보편적 원리와 경험적 관찰이 제공하는 구체적 증거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식론은 필연적으로 독단론이나 회의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성과 경험이 서로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지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지식의 가치가 단순히 현실적 유용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자기 이해와 세계관 형성에 기여하는 근원적 탐구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① 오윤석은 주희가 '이'라는 선험적 원리를 중시한 것은 인정하나, 격물 과정에서 '경험적 관찰의 증거'를 보편 원리에 종속시킬 경우 독단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② 오윤석은 최한기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선험적 이성의 보편 원리' 탐구를 소홀히 할 경우 회의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오윤석은 정통 주자학자가 최한기를 비판하며 인간의 자기 이해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나, 경험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점은 지식 발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것이다.
④ 오윤석은 후대 학자가 최한기의 실용 정신을 높이 산 것은 수긍하지만, 최한기의 지식론이 인간의 근원적 탐구나 세계관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⑤ 오윤석은 주희의 점진적 이치 탐구와 최한기의 실증적 지혜 추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성과 경험의 '상호 보완'을 통해 지식의 점진적 발전을 이루려는 시도였다고 단정할 것이다.

[11~15] 수능특강 93P 연계

(가)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둘러싼 심신 문제는 철학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이다. 특히 데카르트가 명료하게 구분한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의 이원론은 두 실체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심각한 이론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세기 이후 과학적 세계관의 확산과 함께 정신 현상을 포함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것이거나 물리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물리주의가 철학적 주요 입장으로 부상했다. 심리철학 영역에서 물리주의는 의식, 감정, 사고와 같은 인간의 다채로운 내면세계를 물질적 과정의 틀 내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곧 마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물리주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하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으나, 동시에 새로운 철학적 논쟁의 장을 열었다.

이러한 물리주의적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이론 중 하나는 행동주의였다. 특히 논리적 행동주의는 마음 상태에 관한 모든 의미 있는 진술이 특정 외부 자극에 대한 관찰 가능한 행동 반응이나 행동 경향성에 관한 진술로 환원되거나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어떤 이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심적 상태는 그가 물을 찾거나 마시려는 행동을 실제로 보이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 사실로 번역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접근은 마음을 사적인 내면 영역에서 공적인 관찰 영역으로 끌어내어 심리학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이원론의 상호작용 문제를 회피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행동주의는 동일한 행동 이면에 상이한 마음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고통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경우나 반대로 고통을 연기하는 경우, 혹은 마음 상태는 존재하지만 어떠한 행동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전신 마비 환자의 사유 등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욱이, 주관적 경험의 생생한 질감인 이른바 감각질은 행동적 기술로 포착되기 어려워, 마음을 행동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마음의 내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져 후속 이론의 등장을 예고했다.

행동주의가 직면한 난점들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등장한 것이 심신 동일론, 그중에서도 유형 동일론이었다. 이 이론은 특정 유형의 심적 상태가 특정 유형의 뇌 신경 상태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느낀다'는 심적 상태 유형은 뇌의 특정 신경 섬유, 가령 C-섬유가 활성화되는 신경 상태 유형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 가능한 뇌의 물리적 과정으로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이른바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부합하여 형이상학적 설명을 간결하게 만들고, 마음의 인과적 역할을 뇌의 인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동일론은 마음의 소재지를 뇌로 특정함으로써 행동주의보다는 한층 구체적인 물리주의적 설명을 제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형 동일론 역시 강력한 반론에 부딪혔는데, 바로 다중 실현 가능성의 문제였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심적 상태가 반드시 동일한 유형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만 실현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개, 문어, 혹은 가상의 외계인이나 미래의 인공지능도 각기 다른 물리적 구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나 믿음과 같은 동일한 종류의 심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특정 심적 상태 유형을 특정 뇌 상태 유형과 일대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결국 행동주의와 유형 동일론은 마음을 각각 관찰 가능한 행동이나 특정 유형의 뇌 상태로 환원하려 했으나, 마음의 내면적 측면이나 다양한 물리적 기반에서의 구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은 심적 상태의 본질을 그것이 구현되는 특정한 물리적 구성 물질보다는, 그것이 시스템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초기 이론들의 실패는 마음의 복잡성을 단순한 물리적 상태로 환원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냈으며,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후속 이론들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나)

초기 물리주의 이론들이 직면한, 특히 유형 동일론을 강하게 압박했던 다중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주의가 심리철학의 전면에 등장했다. 기능주의의 기본 주은 심적 상태가 그것의 물리적 구성 성분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 인과적 역할, 즉 특정 입력, 예를 들어 감각 자극 등과 다른 심적 상태들에 반응하여 특정 출력, 예컨대 행동 등을 산출하고 다른 심적 상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의해 개별화된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기능적 역할을 튜링 기계의 작동 방식이나 콜라 자판기의 입력-상태-출력 관계에 유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심적 상태를 일종의 추상적인 인과적 구조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로 파악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이 다양한 물리적 체계, 즉 인간의 뇌, 동물의 신경계, 컴퓨터의 실리콘 칩 등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하여 다중 실현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기능주의의 설명 방식은 다중 실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현대 인지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와 강한 친화성을 보였다. 특히 계산주의 마음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뇌를 하드웨어에 유비하면서, 심적 과정이 곧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심적 상태의 종류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마음의 과학적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으며,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기능주의 내에서도 그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기계 상태 기능주의, 분석적 기능주의 등과 같이 다양한 분파가 등장하며 논의를 확장해 나갔고, 이는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능주의 역시 마음의 모든 측면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난제는 주관적 경험의 질적 측면인 감각질 문제이다. 네드 블록이나 데이비드 차머스 같은 철학자들은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시스템이라도 서로 다른 감각질을 경험하거나, 예를 들어 색깔 경험이 정반대로 뒤바뀐 역전된 스펙트럼의 경우, 심지어 감각질이 아예 없는 경우, 이른바 철학적 좀비 논증이 가능하다면, 심적 상태를 오직 기능적 역할로만 정의하려는 기능주의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존 설이 제시한 중국어 방 논증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그 기능과 관련된 의미나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지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기능주의의 설명력에 도전했다. 이러한 비판들은 기능만으로는 마음의 본질, 특히 인간 의식의 핵심적 특징인 주관적 경험의 측면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기능주의가 직면한 이러한 난제들은 물리주의 진영 내에서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촉발했다. 한 갈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로,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물리적 속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반 관계를 통해 마음의 독

자성을 일부 인정하려 했다. 이러한 ㉠한 비환원론자의 입장에 따르면, 물리적 상태가 동일하면 심적 상태도 반드시 동일해야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적 인과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으나, 수반 관계 자체의 설명력과 심적 인과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더욱 급진적인 제거적 유물론이 등장했다. ㉡한 제거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의 개념들, 이른바 민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의도와 같은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오류투성이인 원시적 이론이며, 신경과학이 충분히 발전하면 이러한 심적 용어들은 마치 과거의 플로지스톤이나 에테르처럼 과학의 역사에서 폐기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의 현재 개념 틀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입장은 그 급진성으로 인해 강한 철학적 반발과 함께 물리주의 내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물리주의의 등장 배경과 초기 이론들의 핵심 및 난점을, (나)는 이에 대한 대안과 그것이 야기한 새로운 논쟁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② (가)는 심신 문제에 대한 물리주의의 일반적 입장을 제시하고 대표 이론들을 옹호하며, (나)는 이 초기 이론들의 방법론적 결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후속 이론들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비교한다.
③ (가)는 행동주의에서 동일론으로 이어지며 마음의 내면성이 간과되는 과정을, (나)는 기능주의가 다중 실현을 인정하나 주관적 경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분석한다.
④ (가)는 물리주의 내 다양한 이론이 심신 상호작용 문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음을 보이고, (나)는 기능주의 이후 등장한 이론들이 마음에 대한 통일된 설명을 제시했음을 암시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심리철학의 핵심 쟁점들을 나열하고, 각 이론이 과학적 세계관과의 정합성 확보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그 이론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동주의는 마음을 객관화하려 했으나, 동일 행동 이면의 상이한 마음이나 감각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후속 이론의 등장을 야기했다
② 유형 동일론은 마음을 특정 뇌 상태와 동일시하여 물리주의적 설명을 구체화했지만, 다중 실현 가능성이란 반론에 직면하여 그 보편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③ 물리주의는 정신 현상이 물리적 과정에 의존한다고 보아, 마음의 비물리적 실체론을 비판하고 과학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마음 이해를 추구했다.
④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은 심적 상태의 본질을 물리적 구성이 아닌 기능적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는 동일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결정적 논거가 되었다.
⑤ 초기 물리주의 이론들은 마음의 인과력을 뇌의 신경 과정이나 행동 성향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마음의 주관적 질감에 대한 해명에는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기능주의의 감각질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답은 아니지만 심적 속성의 독자성을 물리주의 내에서 확보하려 하고, ㉡은 민간 심리학 개념들이 기능주의가 설명하려는 인과적 역할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본다.
② ㉠은 심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와는 다른 층위에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 관계를 주장하고, ㉡은 신경과학의 발전이 행동주의가 간과한 내적 경험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③ ㉠은 다중 실현 가능성을 수용하면서도 심적 속성의 실재를 인정하는 절충적 입장을, ㉡은 민간 심리학의 설명적 실패가 유형 동일론의 주장처럼 특정 심적 용어의 과학적 재정의를 요구한다고 본다.
④ ㉠과 ㉡은 모두 기능주의가 직면한 난제에 대한 물리주의적 해결책이지만, ㉠은 마음의 자율성을, ㉡은 마음 개념의 근본적 오류를 각각 강조하며 물리주의 내에서 상이한 이론적 경로를 모색한다
⑤ ㉠은 심적 인과를 물리적 인과와 양립시키려는 시도로, ㉡은 기능주의가 설명하는 마음의 정보 처리 과정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상태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4. (나)의 기능주의와 제거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어떤 심적 상태의 동일성은 그것이 다양한 물리적 체계에서 동일한 입력-출력 관계 및 다른 심적 상태와의 관계망을 유지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믿음', '욕구'와 같은 심적 용어들은 신경과학적으로 규명될 실제적이고 독립적인 내적 상태들을 성공적으로 지칭한다.
ㄷ.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주관적으로 전혀 다른 색깔을 경험하거나 아무런 의식적 경험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이론적으로 상상 가능하다면, 기능만으로 마음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ㄹ.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현재 통용되는 심적 개념들의 의미 분석보다는 뇌의 물리적 작동 기제를 탐구하여 기존의 심리 이론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① 기능주의는 ㄱ에 동의하고 ㄴ과 ㄷ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제거적 유물론은 ㄹ에 동의하겠군.
② 기능주의는 ㄱ에 동의하고 ㄷ을 난점으로 인식하며, 제거적 유물론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③ 기능주의는 ㄱ과 ㄷ에 모두 동의하지 않고, 제거적 유물론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④ 제거적 유물론은 ㄴ과 ㄷ 모두에 동의하지 않고, 기능주의는 ㄱ에는 동의하나 ㄷ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겠군.
⑤ 제거적 유물론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며, 기능주의는 ㄷ을 핵심적인 반론으로 인정하지 않겠군.

15.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제시된 이론들에 대한 '임세진'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철학자 '임세진'은 특정 사상 체계나 과학 이론의 발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문제 해결 능력으로,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이나 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가이다. 둘째, 예측의 풍부성으로, 이론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새로운 사실이나 현상을 얼마나 다채롭게 예측하고 발견을 이끄는가이다. 셋째, 이론적 정합성으로, 이론 체계 내부에 논리적 모순이 없으며 기존의 잘 정립된 지식 체계와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이다. 넷째, 퇴행적 전환의 부재로, 이론이 반박 사례에 직면했을 때 핵심 가정을 임시변통으로 수정하거나 설명 범위를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론의 핵심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임세진에 따르면, 이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수록 그 이론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① 임세진은 행동주의가 이원론의 상호작용 문제를 회피하려 한 점은 인정하나, 감각질 등 핵심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새로운 예측을 제시하지 못해 발전적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것이다.

② 임세진은 유형 동일론이 다중 실현 가능성이란 반박에 직면했을 때, 이론의 핵심을 고수하며 설명 범위를 넓히지 못했다면 이는 퇴행적 전환에 해당하며, 기능주의로의 이행은 새로운 문제 해결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③ 임세진은 기능주의가 다중 실현 문제를 해결하고 인지과학 연구를 촉발한 점은 높이 평가하겠지만, 감각질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분파를 형성한 것은 이론적 정합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④ 임세진은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심적 속성의 독자성을 주장한 것이 기존 물리주의의 설명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이나, 수반 관계의 불명확성이 이론적 정합성을 해치고 새로운 예측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⑤ 임세진은 제거적 유물론이 민간 심리학의 오류를 지적하며 신경과학 기반의 새로운 탐구를 제안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존 심리학적 지식과의 심각한 불일치와 설명해야 할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점은 문제 해결 능력이 낮다고 평가할 것이다.

[16~20] 수능특강 73P 연계

(가)

현대 사회의 본질을 정보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로서 정보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정보철학 분야의 선구자인 플로리다는 정보가 현실을 구성하고 우리의 세계 이해를 매개하는 핵심 요소임을 역설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분석 관점으로서의 추상화 수준인데, 이는 복잡한 현상을 분석할 때 관찰 가능한 항목들의 집합인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분석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방법론적 도구이다. 이는 존재론적 계층이 아니라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관점의 틀을 제공하며, 정보 현상의 다층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기여한다. 플로리다에 따르면, 정보철학은 이러한 추상화 수준을 활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 환경인 이른바 인포스피어와 그 안의 정보적 존재자인 인포그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플로리다는 정보철학의 핵심 탐구 대상으로서 데이터, 정보, 지식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 이 세 가지는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연속선상에 놓인 개념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데이터'는 아직 의미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순수한 신호의 차이, 즉 균일성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원초적 데이터가 특정 구문 규칙에 따라 잘 조직되고, 의미론적으로 내용이 부여되며, 나아가 '참'이라는 진리값을 만족할 때 비로소 '정보', 특히 의미 정보가 된다. '지식'은 이렇게 확보된 참된 정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체계화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거나 설명력을 제공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 플로리다는 정보 처리의 핵심 단계인 ㉡데이터–정보–지식의 위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는 상이한 추상화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데이터–정보–지식의 구분은 각 요소가 지닌 인식론적 가치와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다. 플로리다에게 의미 정보의 핵심 조건은 진실성이며, 이는 정보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참된 기술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참이나 거짓을 논할 수 없는 원자료에 불과하지만, 정보는 진리성을 담보함으로써 비로소 지식 형성의 신뢰할 만한 토대가 된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이해, 즉 일종의 설명적 연결망을 포함한다. 플로리다가 주장하는 '제4차 혁명', 즉 정보기술 발달로 인한 자기 이해의 혁명적 변화는 바로 인간이 이러한 **데이터–정보–지식**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생산, 처리, 활용하는 정보적 존재자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진실성과 지식의 체계성은 인포스피어 내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나)

플로리다 정보철학의 독창성은 무엇보다 의미 정보 개념의 엄밀한 정립에 있다. 그가 제시하는 의미 정보는 데이터에 구문적·의미론적 요건이 충족될 뿐 아니라,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진리조건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진리 중심적 정보 개념은 정보의 질을 확보하고 지식으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이론적 장치로 기능하며,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플로리다가 구축한 정보철학 체계의 정교함은 바로 이 진리 중심적 정보관에 기반한다. 그렇기에 그의 이론은 정보의 존재론적 위상과 인식론적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학문적 기획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성과물들이 과연 정보 현상의 모든 측면을

만족스럽게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유의미하고 진실한 정보로, 그리고 이를 다시 체계적인 지식으로 구성하는 단계적 과정은 일견 명료한 위계적 모델로 보이지만, 현실의 정보 생태계는 이러한 규범적 모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거짓 정보나 오정보는 분명 진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참된 정보처럼 유통되며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현상을 플로리다의 엄격한 의미 정보 정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거나 그 작동 기제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철학이 정보 현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려면, 플로리다는 참된 정보 외에, 진리값과는 무관하게 유통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사 정보 또는 기능적 정보 범주를 이론 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데이터-정보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의미 정보는 지식 구성의 이상적 목표일 수 있지만, 현실의 인포스피어는 다양한 수준의 불완전한 데이터나 탈진실적 서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쩌면 정보철학은 참을 지향하는 규범적 측면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기반 현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실천적 측면을 더욱 강화해야 할지 모른다. 플로리다 스스로가 정보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고려할 때, 현실에 존재하는 비진리적 정보의 해악과 그 통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그의 정보철학 체계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정보철학의 토대인 방법론과 핵심 개념을 정립하고, (나)는 이 핵심 개념의 이론적 가치와 현실 적용 시의 한계를 심층 분석한다.
② (가)는 정보의 객관적 기준 확립을 목표로 한 이론을, (나)는 정보 가치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가)의 이론과 대립하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③ (가)는 데이터가 정보와 지식을 거쳐 발전하는 단계를 제시하며, (나)는 이러한 위계적 정보관이 현실 정보 생태계의 복잡한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논한다.
④ (가)는 플로리다 이론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는 그 이론에 기반한 정보 윤리의 구체적 실천 원리를 도출하며 그 한계를 검토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철학의 학문적 위상을 강조하며, 그것이 전통 철학의 인식론적 문제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지 논증한다.

17. (가)에서 알 수 있는 플로리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철학은 추상화 수준을 활용하여 인포스피어와 정보적 존재자라는 새로운 탐구 대상을 규명하는 학문 분야이다.
② 데이터, 정보, 지식은 정보 처리의 핵심 단계로서 명확히 구분되지만, 인식론적 가치의 위계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발전한다.
③ 의미 정보의 핵심 요건인 진실성은 정보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참된 기술임을 의미하며, 이는 지식 구성의 필수적 기반이 된다.
④ 추상화 수준은 실재의 고정된 계층이 아니라, 분석가의 연구 목적과 관심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되는 방법론적 관점의 틀이다.
⑤ 제4차 혁명은 인간이 정보적 존재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찰이며, 정보의 진실성과 지식의 체계성은 윤리적 행동의 전제이다.

18. (가)에 따라 '데이터, 정보, 지식'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자의 개별 혈압 측정값 자체는 데이터이며,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고 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특정 질병의 발병 기제와 진행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지식이다.
②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단순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것이 여러 경로로 교차 검증되어 사실로 확정되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정보가 될 수 있다.
③ 특정 지역의 시간별 강수량 관측 기록은 데이터,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강수 확률을 분석하여 예보하는 것은 정보, 누적된 기상 정보와 복잡한 예보 모델을 통해 기후 변화의 장기적 추세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지식이다.
④ 기업의 분기별 상세한 재무제표 원본은 데이터이며, 이로부터 '매출액 15% 증가, 순이익 5% 감소'라는 핵심 사실을 추출한 요약 보고는 정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및 구조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지식 활용이다.
⑤ 친구의 무심결한 한마디 말의 음성 패턴은 데이터이고, 그 말이 특정 상황에서 친구의 숨겨진 불만을 드러낸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이며, 이러한 해석적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평소 성향을 추론하는 것은 지식이다.

19.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가)의 ㉠과 ㉡에 대한 플로리다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정보 현상의 다층적 분석에 유용하나, ㉡의 진리 중심적 정보관과 결합 시 현실의 다양한 비진리적 정보가 지닌 복합적 영향력 분석에는 제약이 따른다.
② ㉡에서 정보의 진실성을 핵심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이론의 규범성은 높이지만,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짓 정보의 다양한 작동 기제 해명에는 미흡하다.
③ ㉠으로 분석된 ㉡의 단계적 과정이 지나치게 객관적 진리만을 강조한다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유통되는 여러 '유사 정보'의 복합적 기능과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④ ㉡의 위계가 객관적 참만을 정보로 인정하고 그 외의 데이터 기반 현상을 배제할 경우, 인포스피어 내에서 '탈진실적 서사'가 어떻게 신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는지 설명하기 곤란해진다.
⑤ ㉠과 ㉡에 기반한 정보 윤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이론 체계는 비진리적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을 통제할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

20. <보기>는 플로리다와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플로리다: 정보의 가치는 그것이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의미 정보'는 객관적 진실성을 그 핵심 요건으로 삼음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사회적 합의와는 독립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지식으로 발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인포스피어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이러한 정보의 객관적 진실성에 대한 천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의 글쓴이: 교수님의 말씀과, 교수님께서 (가)에서 제시한 정보철학의 기본 방법론 및 정보의 정의를 연결해 보면, ㉮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①정보의 객관적 진실성 추구가 이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유통되는 데이터조차 지식처럼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추상화 수준을 통한 정보의 다층적 분석 자체는 매우 유효한 방법론이지만, 정보의 진실성 여부가 모든 분석 수준에서 동일한 규범적 무게를 지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데이터에서 정보, 그리고 지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위계는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었지만, 현실의 정보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그 의미가 역동적으로 구성된다.
④ 정보의 진실성이 윤리적 행동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허위 정보가 특정 집단의 왜곡된 윤리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⑤ 정보적 존재자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합리적 판단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야 하지만, 실제 인포스피어에서는 비진리적 정보에 더 쉽게 현혹되어 판단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21~26] 수능특강81P연계

(가)

명제적 지식의 본질과 그 정당화 근거를 탐색하는 인식론의 역사에서, 정당화의 무한 후퇴 문제, 즉 모든 믿음이 또 다른 믿음에 의존해야 한다면 결국 어떤 믿음도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난점은 핵심적인 도전 과제였다. 이러한 회의주의적 귀결을 피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토대론이다. 토대론은 인간의 지식 체계가 더 이상 다른 믿음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자기 정초적 믿음들과, 이들에 의존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파생적 믿음들로 구성된 ㉠위계적 건축물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로써 정당화의 연쇄는 특정 지점에서 논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토대론의 틀 안에서, 기초 믿음은 그 자체로 인식적 특권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권의 원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직접적 감각 경험이나 내성적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내용, 혹은 이성의 자명한 원리 등이 그 후보로 제시된다. 파생 믿음은 이러한 기초 믿음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논리적 추론 규칙들을 적용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지식의 확장된 영역을 이룬다. 특히 고전적 토대론은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초 믿음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오류 불가능성, 의심 불가능성, 또는 교정 불가능성과 같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회의주의의 공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식의 절대적 확실성을 보장하려는 철학적 열망의 발현이었다. 그 결과, 데카르트적 사유에서 발견되는 명석 판명한 관념이나 직접적 감각 소여에 대한 믿음 등이 이러한 이상적 기초 믿음의 전형으로 여겨졌고, 이로부터 연역적 확실성을 통해 다른 모든 지식이 엄밀하게 구축될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이처럼 고전적 토대론이 제시한 지식의 이상향은 매우 견고해 보였으나, 그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지식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판자들은 오류 불가능성과 같은 절대적 확실성을 만족시키는 기초 믿음의 풀이 극도로 협소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니는 방대한 양의 평범한 믿음들이나 복잡한 과학적 지식들을 모두 정당화하기에는 그 토대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저 앞에 나무가 있다'는 일상적인 지각 믿음조차 아주 작은 착각의 가능성이라도 내포한다면 고전적 토대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설정된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대부분의 지식을 회의주의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역설에 직면한 것이다. 나아가, 기초 믿음에서 파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추론의 경로 또한 주로 연역에 한정됨으로써, 인간 지식의 풍부하고 다양한 확장 방식을 설명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토대론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그 엄격성을 완화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모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다.

(나)

고전적 토대론이 직면한 기초의 협소성과 추론의 제약이라는 난제는, 지식의 확실성과 지식의 범위 사이의 근원적 긴장을 드러냈다. 이에 토대론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려는 시도로서 최소 토대론, 혹은 온건한 토대론이 등장했다. 이 입장의 핵심은 기초 믿음이 절대적으로 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믿음으로부터 추론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초기적 정당성, 즉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응의 정당성'을 지니면 충분하다고 보는 데 있다.

최소 토대론의 이러한 관점 변화는 인식론적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기초 믿음의 후보는 더 이상 극소수의 자명한 명제나 직접적 감각 소여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감각 지각에 대한 믿음, 기억 믿음, 심지어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증언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초 믿음들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의심의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인식적 신뢰도를 부여받는다. 파생 믿음을 정당화하는 추론 방식 또한 연역뿐 아니라 귀납, 가설 설정 추론,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등 다양한 개연론적 추론들을 포용함으로써, 실제 우리의 지식 형성 과정에 더 부합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전적 토대론이 회의주의의 위협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과 달리, 최소 토대론은 상식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광범위한 영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기초 믿음에 대한 요건 완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야기했다. 만약 기초 믿음이 오류 가능성을 지닌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초기적 정당성을 획득하는가? 순수한 감각 경험 자체가 정당화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경험에 대한 특정 해석이나 개념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또한, '일응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의 인식적 무게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정당성이 파기되거나 무효화되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일부 비판가들은 최소 토대론이 기초 믿음의 정당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믿음들과의 정합성에 암묵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인식적 정당화의 토대론적 설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토대론은 그 형태를 바꾸며 인식론의 핵심 논쟁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지식의 구조와 근원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정당화의 토대를 세우려는 시도를, (나)는 그 시도가 야기한 또 다른 난제들과 그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② (가)는 기초 믿음의 절대적 확실성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 예를 들지만, (나)는 이러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함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인다.
③ (가)는 정당화의 연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론의 기본 구상과 고전적 형태의 특징을, (나)는 그 고전적 형태의 한계에 대한 최소 토대론의 대응과 그것이 직면한 새로운 인식론적 쟁점들을 제시한다. (70자)
④ (가)는 지식 토대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파생 믿음의 엄격한 추론을 강조하나, (나)는 이러한 강조가 오히려 지식의 범위를 축소시켜 회의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토대론적 관점에서 지식의 정당화 가능성을 긍정하고, 그 과정에서 감각 경험과 이성적 사유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함을 역설한다.

22. (가)에서 알 수 있는 고전적 토대론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화의 무한 후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확실하며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기초 믿음의 설정이 인식론적으로 필수적이다.
② 기초 믿음은 오류 불가능해야 하며 감각 소여 등이 그 예이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모든 지식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파생 믿음의 정당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초로부터 연역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④ 지식의 확실성은 회의주의의 도전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⑤ 위계적 건축물과 같은 지식 체계는 이성과 경험에 기반한 객관적 지식의 보편성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23. (가)에 따라 '기초 믿음'과 '파생 믿음'의 관계 및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접적 감각 경험, 예컨대 '내 앞에 붉은 것이 보인다'는 것은 기초 믿음이 될 수 있고, 이로부터 '이것은 잘 익은 사과이다'라는 믿음을 추론하는 것은 파생 믿음의 형성 과정이다.
② '2 더하기 2는 4이다'와 같은 자명한 수학적 진리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공리로 사용하는 복잡한 수학적 증명의 결론은 파생 믿음이다.
③ 고전적 토대론에 따르면, 기초 믿음이 지닌 절대적 확실성은 그로부터 도출되는 파생 믿음으로 손상 없이 전달되어야만 전체 지식 체계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는 지금 강한 슬픔을 느낀다'는 내성 보고는 오류 불가능한 기초 믿음의 후보이지만, 이로부터 '나를 슬프게 한 특정 외부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파생 믿음의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⑤ 기초 믿음은 다른 믿음과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식적 특권을 지니며, 파생 믿음은 오직 이러한 특권적 기초와의 정당화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지위를 획득한다.

24. (나)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가)의 ㉠이 제시하는 지식 구조와 (나)의 ㉡이 언급하는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단일하고 확고한 토대 위에 지식 체계를 세우려는 이상은, ㉡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소 토대론에서 기초 믿음 정당성의 다원적 근거나 잠정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이상 실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② ㉠이 상정한 정당화의 위계적 안정성은, ㉡의 논의에서 보듯, 최소 토대론이 기초 믿음의 절대적 확실성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정당화 기준과 인식적 신뢰도 확보 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③ 최소 토대론이 ㉠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며 기초 믿음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에서 암시된 비판처럼 그 정당성 확보 과정에서 다른 믿음과의 정합성에 의존한다면 순수한 토대론적 성격은 약화될 수 있다.

④ ㉠에서 파생 믿음의 정당화 방식이 최소 토대론에서 연역 외의 다양한 개연적 추론으로 확장됨에 따라, ㉡의 문제는 기초 믿음 자체의 지위 문제뿐 아니라 그 추론 규칙들의 인식론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⑤ 고전적 토대론의 ㉠은 ㉡이 지적하는 정당화의 근본 문제에 대해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명확한 해답을 추구했으나, 그 지나친 엄격성으로 인해 오히려 최소 토대론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 관련 논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25. <보기>는 한 실용주의 철학자와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실용주의 철학자: 지식의 정당화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토대를 찾는 지적 탐색이라기보다는, 특정 탐구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실천적 목표와 문제 해결의 맥락 속에서 잠정적으로 승인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미래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이지, 인식론적 특권을 지닌 어떤 기초에 의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의 글쓴이: 선생님의 통찰과, 고전적 토대론의 한계 및 최소 토대론이 직면한 새로운 물음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① 인식적 정당화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보다는, 특정 맥락에서의 믿음의 실천적 유용성과 문제 해결 효과를 중심으로 정당화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토대론이 추구하는 절대적 확실성이나 인식론적 특권은 실제 지식 활동의 역동성과 유리된 이상이며, 지식의 가치는 그것이 산출하는 실천적 결과와 분리하여 온전히 평가될 수 없다.

③ 최소 토대론이 제시하는 기초 믿음의 '일응의 정당성'마저도 결국 그것이 속한 전체 믿음 체계의 내적 정합성이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그 타당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

④ 정당화의 무한 후퇴를 차단하기 위한 인식적 토대의 설정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일 수 있으나, 그 토대의 성격과 정당성의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탐구 공동체의 실용적 합의와 목적에 따라 상대화될 수 있다.

⑤ 토대론적 설명이 지닌 여러 인식론적 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화의 근원 문제는 결국 지식의 확실성 확보 여부보다 특정 탐구 상황에서의 실용적 성공 여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